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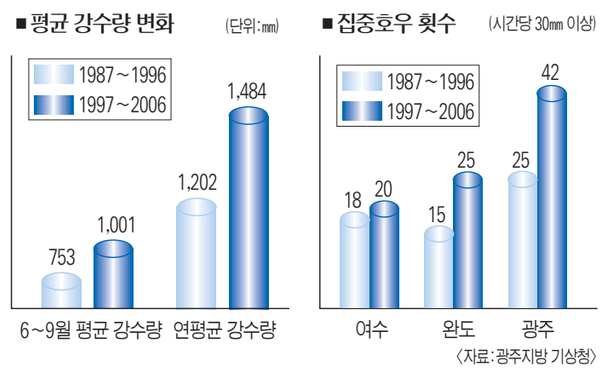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83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7년 8월 13일 (음력 7월 1일) 월요일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집중호우 급증 심상찮다

광주 10년새 68% 늘어…온난화 대기불안 탓



장마가 끝난 우리나라 전역에 연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지난 12일 흑산도에는 한 시간 만에 53㎜의 장대비가 내렸고, 5일에는 충남 제천에 시간당 92.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관련기사 6면〉

전통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의 개념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장마 이후 무더위와 함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기습폭우가 쏟아지는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상청의 통계 분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광주 집중호우 68% 증가=광주지방기상청이 지난 20년간 호남지방 6개 기상관서(광주·목포·여수·완도·전주·군산)의 6~9월의 강수량을 전반기(1987~1996년)·후반기(1997~2006년) 10년씩 나누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는 전반기 106회, 후반기 134회가 내려 10년동안 28회가 증가한 것으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루에 100㎜ 이상 혹은 연 강수량의 10% 해당하는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광주의 경우 87년부터 96년까지 전반기 10년동안 25차례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97년부터 2006년까지 후반기 10년동안에는 42회를 기록, 집중호우 빈도가 68%나 늘어났다. 광주·전남북 지역의 6~9월 평균 강수량도 753㎜에서 1천1㎜로 248㎜나 증가했고, 또 1년 전체 평균 강수량도 1천202㎜에서 1천484㎜로 282㎜가 늘었다. 집중호우 횟수가 증가하면서 누적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집중호우 왜 증가하나=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과 공기 중 수증기량 증가를 집중호우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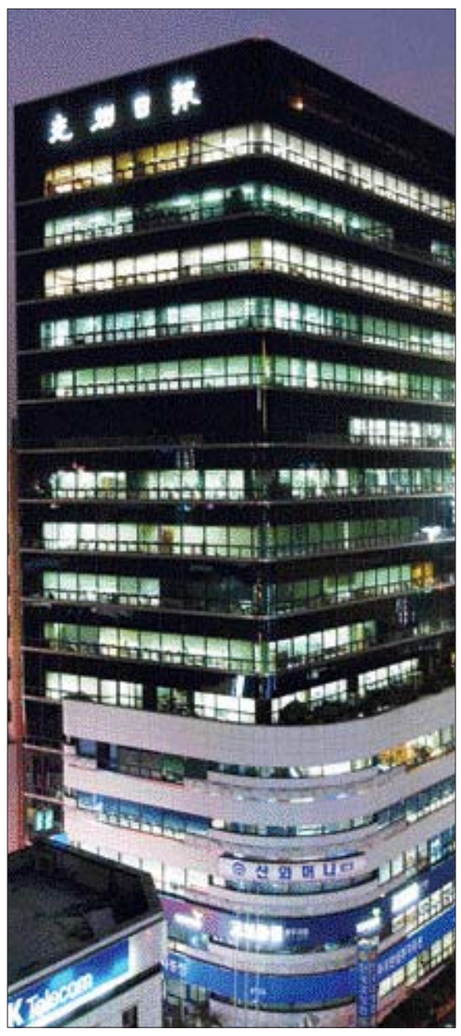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단(氣團)과 중국 대륙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그 경계면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증가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도 집중호우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도시화에 따라서 '열섬현상'(인공열과 인공시설물, 대기오염 등에 의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이 나타나 도시 상공에 상승기류가 생성돼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이 만들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

社告

光州日報가 시·도민 여러분을 '경영주'로 모십니다

10월31일까지 공모주 모집



55년 역사와 함께 지역 대표언론을 자임해온 광주일보가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신문으로 재탄생합니다.

지난 2003년 광주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한 대주그룹은 편집권의 완전한 독립,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경영권을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완전 개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그룹은 광주일보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광주일보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지난 4년간 광주일보의 경영을 도와온 대주그룹은 이제 시·도민 소액주주와 양식있는 중소지역자본들을 초대해 경영을 맡기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는 기업 본연의 사명에 전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민의 신문, 호남여론의 대변지 광주일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반세기 이상 광주일보를 사랑해주신 시·도민의 공유물이자 완전한 사회적 공기(公器)로 진화(進化)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사에 이정표가 될 이번 경영개방 결정은 특정기업이 언론사를 겸영(兼營)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소하고 광주일보가 언론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기다립니다.

향후 일정

▲8월 31일까지 광주일보 경영개방위원회 구성
▲10월 31일까지 시·도민 공모주 모집
▲문의전화 062-222-8111~4

光州日報社

탈레반 "여성 2명 석방 변함없다"

韓-탈레반 3차 대면접촉 재개

탈레반 무장세력이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키로 했다가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우리측 대표단과 탈레반 대표단 사이의 3차 대면 접촉이 12일 재개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12일 새벽(현지시각) 연합뉴스와 간접통화에서 아마디는 "(애초) 발표한대로 11일 밤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하진 않았지만 이들을 선(先) 석방한다는 기본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확언한 뒤 "석방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오늘 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성인질 2명을 가즈니주 적신월사에 넘기려고 가던 도중 탈레반 지도자 위원회가 결정을 바꿔 지난 밤에 석방치 않기로 해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 갔다"며 "뭔가 혼선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마디는 이에 앞서 "석방계획이 취소됐으며 인질을 석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가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지난 밤 석방한다는 계획은 변경됐고 일단 보류상태"라고 입장을 살짝 틀었다.

탈레반 세력은 이미 지난달 26일에도 인질 8명을 석방하려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강경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어 지도부 내부에서 강온파간 대립에 따른 혼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혼선 속에서도 인질 석방을 둘러싼 한국 대표단과 탈레반의 협상이 12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오후 3시)부터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의 주도 가즈니시티 적신월사 건물에서 재개됐다. 이날 협상에서는 탈레반이 석방 발표를 한 한국인 여성인질 2명의 석방 절차문제와 나머지 인질 석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두바이=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다소 지연

北, 수행원·취재진 명단 요구…오늘 일정 통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준비접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북측은 12일 오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개성에서 13일 정상회담 준비접촉을 갖고 방북 경로와 체류 일정, 방북단 규모 등을 논의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내일 준비접촉 개최 일자를 알려주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김남식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다.

북측은 13일 준비접촉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후 통화과정에서 '준비접촉을 위한 수행원과 취재진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명단 통보를 요청한 점에 미뤄볼 때 준비접촉이 예상했던 13일보다는 다소 미뤄지겠지만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늘 오후 명단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